

문화뉴스

정읍시, 관용 친환경전기차 구입

부안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안군보건소(소장 김달천)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다음달 4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관내 지정 병·의원 26곳에서 실시한다.

보건소 무료 접종대상자는 만 65세(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이며 만 65세 이상은 관내 지정 병·의원에서도 접종하기가 가능하다.

유료 접종대상자는 만 6개월 이상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예방접종을 한다.

노년층(만 65세 이상)에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만성심·폐질환, 당뇨, 만성신부전 등 기존에 앓던 만성질환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이전인 오는 10~11월 사이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단골 병·의원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전 후의 주의사항은 접종 당일 음주나 지나친 운동은 피하고 만사절 이상 안정을 취해야 하며 접종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들은 접종 후 열이 오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오전 중에 접종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예방접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 063-580-38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한 예방을 집중하려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자동차 4500만원, 완속 충전기 설치 600만원 지출... 관내 출장으로 활용

정읍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최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1대 구매에 전기자동차 4,500만원, 완속 충전기 설치 600만원 등 총 5,10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번에 구입한 전기자동차는 1회 충전으로 최대 190km를 운행할 수 있으나 배터리 성능상 장거리 출장은 자제하고 주로 친환경 자동차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홍보와 관내 출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화석연료 대신 전기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시 배기가스는 물론 미세먼지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소음도 적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하여 차량구입비 14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용(최대 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추진과 아파트



정읍시는 전기자동차 구입시 국비 1400만원 외에 지방비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지 내 RFID칩 설치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서도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구입시 국비 1400만원 외에 지방비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정도시 정읍시에 걸맞은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부자유친'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어울림 문화교육지원사업으로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3일과 오는 30일 2회에 걸쳐 다문화가족 4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어울림 문화교육지원사업 수시교육 부모·자녀 관계향상 부자유친 프로그램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다문화어울림 문화교육지원사업으로 풍물 단과 태권도 교실을 운영 중이며 이번 부자유친 프로그램은 태권도 교실에 참여하는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평소 경직된 부모-자녀 간의 관계와 화복을 돕고 자연스러운 대화와 스킨십의 기회를 제공해 상호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마련하게 됐다.

더욱이 부자유친 프로그램은 저녁시간대에 진행해 직장 및 농사일 등으로 평소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다문화가족 아버지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나는 전래놀이 즐기기, 아빠와 함께 케이트 만들기, 엄마와 함께 가족 지갑 만들기 등 서로 간 자연스러운 소통을 돕고 가족의 사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해 부모의 역할에서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 군의 아버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자연스러운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자녀의 성장과 교육, 취미 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부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 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지평선축제, 셔틀버스 운행준비 박차

운행 차량 늘리고 번호 부여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5일간) 열리는 '제18회 김제지평선 축제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관광객 및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화 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 차량 증차, 노선별 고정번호 부여, 운행노선 정비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셔틀버스 운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제시 셔틀버스 운행 개선안에 따르면 셔틀버스 출발 승·하차장을 5개소에서 올해는 6개소로 1개소(중앙병원 앞) 늘리고 셔틀버스 대수를 1일 18대(대형 12, 소형 6)에서 21대(대형 15, 소형 6)로 3대 증차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

정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차량 부착 노선안내 표시를 노선명(벽골제·김제역 등)으로 하였으나 시내버스 이용에 익숙한 시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노선에 따라 고유번호(①벽골제·김제역)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각 셔틀버스는 벽골제 출발을 기준으로 1번 김제역, 2번 김제버스터미널, 3번 구 문화예술회관, 4번 구산사거리, 5번 중앙병원 앞 등으로 각각 지정하였으며, 6번은 국도 29호 선 임시주차장을 고정 왕복하여 운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벽골제에서 시내권으로 이동시 1개소의 시내권 승강장을 경유하도록 하여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시내에서 행사장까지 교통체증에 영향이 없도록 별도의 셔틀버스 전용차로를 지정하여 운행하게 된다. 이번 개선사항은 오랫동안 셔틀버스를 담당했던 건설과 전 직원이 참여한 3차례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임성근 건설과장은 "그동안 지평선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교통체증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사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 것"이라며 "민간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보다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에서도 개인차량 대신 셔틀버스 이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합동홍보 펼쳐

김제시는 지난 22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북도 대회에 참여하여 행정자치부,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도로명주소 정착과

활용을 제고를 위해 홍보를 펼쳤다. 김제시는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접점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의 지원과 도로명주소 활용방법을 담은 홍보동영상 실내상영, 스마트폰 앱 활용안내를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제관리가 풍부한 8명의 직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 고물상 방문 복지관련 조사

2개월간 34개소 특별조사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걸쳐 재활용수집상(고물상)을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특별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제시는 34개소의 재활용수집상이 산재하고 있으며 폐지·고철·고철 등을 수집판매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시민 중에 복지사각지대나 위기가정 이 있는지를 점검해 살펴보기 위해 복지대상지에 대한 시제관리가 풍부한 8명의 직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

여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는 현재 맞춤형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요청하는 것을 몰라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사를 통해 나타난 복지사각지대나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을 판단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또한 이에 맞는 공공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 지원연계 등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성덕면 코스모스 꽃길 준비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에서는 '제18회 지평선축제' 손님맞이 코스모스 꽃길 준비를 끝마치기 위해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대한적십자회, 성덕면 봉사회 회원 등 각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코스모스 주변에 엉켜있는 덩굴들을 제거하고 비닐막으로 인해 쓰러진 코스모스들을 바로 세워주는 작업 등을 하며 코스모스 꽃길 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 왔다. 이로인해 코스모스들은 성덕면 주요 도로가 17km에 아름답게 자리잡았으며, 오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전국에서 김제 지평선 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가을의 진한 정취감을 느낄 수 있는 코스모스 꽃길이 여행의 맛을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형순 성덕면장은 "지평선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활짝 핀 코스모스길을 따라가며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중앙광온라인교육원

에피도라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정읍시는 25일 오전 9시 중국 양광온라인교육원(이하 양광), 에피도라협동조합(이하 에피도라)과 중국 대학생 연수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생기 시장과 대표 양광의 유홍광대표, 에피도라의 김석관대표는 당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간의 사업인 테마형 어학문화연수 및 오디션 체험(이하 어학문화연수 및 오디션체험)을 위한 업무제휴로 각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연간 5천명의 어학문화체험 연수생을 정읍에 유치함으로써 정읍의 문화관광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역민 소득증대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서에 따라 시는 어학문화연수 및 오디션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읍 지역 내 사전답사 팸투어를 지원하게 된다. 또 에피도라는 어학문화연수 및 오디션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정읍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편성해야 하며, 양광은 정읍 유치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5천명이 정읍에서 어학문화체험연수를 실시하게 된다면 연간 5억원의 지역주민소득이 예상됨은 물론 정읍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중국에 널리 알리게 됨으로써 일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귀감이 갈끔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병주
Premium Chdi Wine

GIFT SET 1.0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0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0 | 750ml 1ea/12%

GIFT SET 4.0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0 | 375ml 5ea/13%

GIFT SET 6.0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0 | 375ml 2ea/13%

TEL : 063-564-9960
www.gansanwine.com